

농촌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연구

After-school activities of rural children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 교수 옥경희
구미 제1대학 유아교육과
조 교수 김미혜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천희영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ersity
Associate Prof. : Ok, Kyunghye
Dept. of Childhood Education, Kumi 1 College
Assistant Prof. : Kim, Mee Hae
Dept. of Child studies, Kosin University
Associate Prof. : Chun, Hui 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After-school activities were examined for 449 rural children in first through seventh grades. Children's engagement of after-school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especially children's age and behavior control ability. Findings showed a decline in amount of time spent studying and reading and a raise in going to a game-room.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were also differed by a range of after-school activities. Children spent more time in studying and reading showed higher grades, happiness, school life. Teachers reported greater aggressive behavior and less adjustment of school life among children participating more in game related activities and hanging out. Watching TV, doing house chores and visiting friends were not variables which showed different outcomes.

◆ key word: 농촌아동, 방과후 활동, 학업·정서·사회성 발달

I. 서론

아동들에게 방과후 시간은 일상생활 중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 아동들은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놀거나, 사교생활을 하기도 하고, 숙제나 공부를 하고, 예·체능활동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친 몸을 위해서 낮잠을 자거나 쉬기도 한다. 아동들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방과후 활동의 참여와 활동 정도에 따라서 발달과 성장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Huston, Wright, Rice, Kerkman & St. Peters, 1990; Huston, Wright, Marquis, & Green, 1999; Larson & Richards, 1989; Pettit, Laird, Bates & Dodge, 1997; Posner & Vandell, 1999).

방과후 활동을 다룬 연구들은 그 관심영역에 따라서 방과후 활동의 참여정도와 방과후 활동에 따른 결과를 다루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과후 활동참여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이 우선으로 꼽힌다 (Fulgini & Stevenson, 1995; Huston et als., 1990; Huston et als., 1999; Posner & Vandell, 1999; Timmer, Eccles & O'Brien, 1985).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운동지도를 더 많이 받고 (Fulgini & Stevenson, 1995; Mauldin & Meeks, 1990), 성인의 보호 없이 바깥놀이에 더 참여하고 활동범위도 더 넓다고 한다 (Posner & Vandell, 1999). 남학생들은 TV시청이나 컴퓨터게임에도 여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나타났는데 (Bianchi & Robinson, 1997; Carpenter et als., 1989; Fulgini & Stevenson, 1995; Huston et als., 1990; Huston et als., 1999; Medrich et als., 1982; Posner & Vandell, 1999),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TV 시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치선·권일남, 1999).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숙제나 집안 일을 더 많이 하거나 (Fulgini & Stevenson, 1995; Huston et als., 1999; Medrich et als., 1982; Posner & Vandell, 1999) 성인들의 지도하에 있는 시

간이 더 많다고 한다 (Posner & Vandell, 1999).

아동들의 연령 또한 방과후 활동참여에 차이를 만드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Larson & Richards, 1989; Posner & Vandell, 1999). 방과후 5세에서 9세 아동들은 수업관련 혹은 예능활동을 위해서 방과후 시간의 12%를 할애하는데 비하여 10세에서 12세 아동들은 23%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Larson & Richards, 1989).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은 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늘어나 연령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ianchi & Robinson, 1997),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바깥놀이에 보내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Posner & Vandell, 1999), TV시청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9세에서 11세 사이 아동들의 TV 시청시간이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후 감소한다고 한다 (Bianchi & Robinson, 1997; Mauldin & Meeks, 1990; Posner & Vandell, 1999).

아동의 가족특성 또한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보이는데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들의 TV시청 시간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Bianchi & Robinson, 1997; Huston et als., 1999). 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 아동들은 중산층 아동들보다 방과후 집안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ner & Vandell, 1999).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은 낮은 가정의 자녀들보다 학교 외의 시설에서 공부와 관련된 활동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V시청 시간도 낮았다 (Fulgini & Stevenson, 1995). 저소득층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과후 아동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TV 시청이었는데 방과후 시간의 20%를 TV시청에 보냈으나 공부하는 시간에는 14%를 사용했다. 10% 정도의 시간은 바깥에서 노는 일이었고 과외활동이나 집안일 그리고 감독이 있는 체육활동에 4%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ner & Vandell, 1999).

아동의 방과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방과후 보호방법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이나 적용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부터라고 하겠다. 부모의 존재여부가 자녀들의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만드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명희, 1992; Galambos & Maggs, 1991; Guernsey, 1991; Long & Long, 1983; Posner & Vandell, 1994; Richards & Duckett, 1994; Steinberg, 1986). 혼자 있는 아동들이 성인이나 기관보호를 받는 아동들보다 TV시청 시간이 더 길고 (Guernsey, 1991; Muller et als., 1991; Posner & Vandell, 1994; Richards & Duckett, 1994), 학교과제를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적었다 (한명희, 1992). 일부 연구자들은 부모의 존재여부가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자녀들의 방과후 시간에 대해서 부모들이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모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부모로부터 감독이 주어지면 아동의 방과후 활동은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Crouter, Helms-Erikson, Updegraff & McHale, 1999; Kerr & Stattin, 2000; Medrich et als., 1982; Pettit, Bates, Dodge & Meece, 1999; Pettit, Laird, Bates & Dodge, 1997; Posner & Vandell, 1999; Stattin & Kerr, 2000).

부모들의 감독이란 부모가 단지 자녀들과 함께 있는가보다 오히려 자녀들이 방과후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가의 정도가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모의 감독과 자녀의 방과후 활동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부모가 자녀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정도가 낮은 경우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낮고 (Crouter, MacDermid, McHale & Perry-Jenkins, 1990; Eme, 1979; White & Kaufman, 1997), 좋지 못한 동료들과 어울려 비행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되고 있다 (Crouter et als., 1990; 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Pettit et als., 1999; Pettit, et als., 1997).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감독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더 잘 알게 되어 문제행동을 덜 일으킨다고도 한다 (Barber, 1996; Barber, Olson & Shagle, 1994; Steinberg, Lamborn, Dornbusch & Darling,

1992). 이와 같이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발달이나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자녀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도 일정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부모가 방과후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여부와 더불어 감독정도가 방과후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아동의 방과후 활동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방과후 활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지닌 특성을 포함시켜 그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Laird, et als., 1998; Pettit et als., 1999).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측되는 아동의 특성 중 하나는 아동의 조절능력이다. 연구자들은 학령기에 진입한 아동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통제할 수 있는 조절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arber et als., 1994; Greenberg, 1982; Maccoby, 1974; Steinberg, Elmen & Mounts, 1989). 조절력이란 충동 때문에 하고자 하는 행위를 참거나 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능력은 아동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이나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본인이 원하는 행동을 얻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Schaffer, 1994). 아동의 조절력은 학업성적 (Mischel, Shoda & Peake, 1988; Shoda et als., 1990), 사회성 (Mischel, Shoda & Peake, 1988; Shoda et als., 1990) 과 정적인 상관을 그러나 사회적 문제행동 (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Fox, 1989; Rothbart, Ahadi & Hershey, 1994)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이 적을 경우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부정적인 것은 남아들의 조절력이 여아들보다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서 (Crouter et als., 1990; Eme, 1979) 아동의 조절능력에 따라서 방과후 활동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예측한다고 보겠다.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만드는 변인들을 밝히는 작업과 더불어 방과후 활동에 따라서 아동발달이나 적용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혀내는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방과후 활동참여는 아동들의 성적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방과후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공부하는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의 성적이 좋았다고 보고한다 (Huston et als., 1999; Pettit et als., 1997; Posner & Vandell, 1999). 아동들이 바깥놀이를 많이 하거나 TV시청에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는 성적이 낮게 나타났다 (Fuligni & Stevenson, 1995; Huston et als., 1999; Larson & Richards, 1989; Long & Long, 1983; Posner & Vandell, 1994, 1999). 사회적 적응영역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행동이 아동들로 하여금 반사회적 행동에 더 참여하게 하고 (Galambos & Maggs, 1991; Steinberg, 1986), 아동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사회성 발달의 부족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Patterson, Vaden, Griesler & Kupersmidt, 1991; Posner & Vandell, 1999), 집안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의 부족으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Bell, 1997)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 정서적 적응의 경우 운동이나 동료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수줍음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Posner & Vandell, 1994, 1999). 일반적으로 정서적 관점에서 아동발달을 살펴보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정적 정서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방과후 활동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과후 아동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가는 이들의 적응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변인들이 방과후 활동의 참여에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구의 대상과 관련 변인들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방과후 활동을 다룬 연구는 그 수와 다루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실태와 (오치선·권일남, 1999) 방과후 활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강태중, 1998; 권일남, 2000; 전하찬, 1997)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만드는 변인을 밝히거나 방과후 활동과 적응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해 주는 연구결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또한 방과후 활동이 지역에 따라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에도 (오치선·권일남, 1999) 불구하고 지역성 특성을 고려하여 방과후 활동을 살펴본 연구결과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농촌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방과후 활동의 참여가 이들의 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아동과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서 농촌 지역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나타내는가?
2.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이 이들의 학업, 정서 및 사회적 적응에 차이를 나타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으로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인구 10만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99명과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을 학년별로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 2학년 120명 (남 66명, 여 73명), 5학년 127명 (남 56명, 여 67명), 중학교 1학년생 230명 (남 90명, 여 140명)이었다.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가정은 전체 가정의 61%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정도는 전체 가정의 70%가 250만원 미만에 속해 있었다. 방과후 아동의 보호형태를 살펴보면 혼자 있거나 동생과 함께 있다고 대답한 자기보호 아동이 전체 아동의 2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이가 많은 형제나, 조부모 혹은 다른 성인들과 함께 있다고 대답한 기타 형태의 보호아래 있는 아동들이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방과후 활동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Richards와 Duckett(1994), Posner와 Vandell(1994), 그리고 김선희(1996)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7개의 활동범주를 선택하였다. 아동들은 각 활동범주에 대해 Likert식 5점 평정척도 (1:항상 한다, 2:자주 한다, 3:가끔 한다, 4:별로 하지 않는다, 5:전혀 하지 않는다)를 이용하여 응답하였다. 방과후 활동에 포함된 영역은 다음과 같다: 공부하기(예습, 복습, 숙제하기); 독서하기(책, 만화책, 잡지); TV 보기(TV, 비디오); 집안일 하기(방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친구 집 놀러가기; 오락실이나 만화가게, pc방 가기; 여가저기 돌아다니기(문방구, 시장, 백화점 등).

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파악정도를 묻는 10문항과 아동에게 궁금한 부분을 추적하는 정도를 묻는 5문항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파악정도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알아야 할 영역들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제작하였으며, 추적정도는 Kerr과 Stattin (2000)이 제작한 도구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두 도구 모두 어머니들이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이 '항상 그렇다'고 행동하면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행동하면 1점까지의 5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게 되어있다.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 α 는 어머니의 파악정도가 .88, 추적정도가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파악정도와 추적정도의 점수를 백분점수로 환산하여 25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4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2) 어머니의 감독

어머니의 감독은 방과후 보호형태와 더불어 어머

3) 아동의 조절력

아동의 조절력은 홍준표 (1996)가 소개한 McGinnis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빈도와 백분율

변 인	빈도	백분율	변 인	빈도	백분율
성별	292	100	모취업	316	100
남	212	43.1	무	123	38.9
녀	280	56.9	유	193	61.1
학년	499	100	경제정도	374	100
초2	140	28.1	100만원 미만	77	20.6
초5	127	25.5	100~150만원	97	25.9
중1	232	46.5	150~200만원	72	19.3
부교육정도	333	100	200~250만원	48	12.8
초등학교	4	1.2	250~300만원	34	9.1
중학교	43	12.9	300~350만원	16	4.3
고등학교	189	56.8	350~400만원	11	2.9
대학교	95	28.5	450만원 이상	19	5.1
대학 이상	2	.6			
모교육정도	334	100	보호형태	464	100
초등학교	10	3.0	자기보호	123	26.5
중학교	59	17.7	부모보호	246	53.0
고등학교	218	65.3	기타	95	20.5
대학교	47	14.1			
대학 이상	0	0.0			

와 Goldstein이 아동의 적응력을 측정하는 문항 중 충동통제와 행동조절 두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참고하여 각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제작하여 이용하였다. 충동통제는 아동들이 충동적, 폭력적 그리고 분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행동조절은 아동들이 상황에 계획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아동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이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 중 하나에 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통제와 행동조절 능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각 도구의 신뢰도 계수 α 는 충동통제가 .68, 행동조절이 .70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충동통제와 행동조절 역시 원점수를 백분점으로 환산하여 25점을 한 단위로 하여 4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4) 아동의 적응: 학업과 정서 및 사회성 영역

① 학업: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업영역에서의 적응은 성적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학업은 1학기 기말고사 성적중 국어, 수학, 사회(슬기로운 생활) 그리고 자연점수를 반별로 T점수로 환산한 후 네 과목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이용하였다.

② 정서: 정서영역에서의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로는 우울 그리고 긍정적 정서로는 즐거움을 포함시켜 측정하였다. 김선희와 김경연(1999)의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성 측정 방법을 참고로 우울과 즐거움을 측정할 수 있는 각각의 4문항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정말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설문지는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정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 α 는 우울은 .734 즐거움은 .84로 나타났다.

③ 사회성 발달: 아동의 사회성 영역은 긍정적 부분으로는 학교생활적응을 그리고 부정적 부분으로는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긍정적 사회행동은 김경희(1998)가 사용한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에서 학교

생활과 관련된 행동을 묻는 8개의 문항과 김선희와 김경연(1999)이 사용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에서 공격적 행동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만들어졌으며 각 행동에 대해서 아동의 담임교사는 평소 아동들을 관찰한 결과 아동이 각 문항의 행동을 80% 이상 보일 때를 '정말 그렇다' 5점으로 해서 각 20% 간격으로 20%이하 그런 행동을 보일 때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학교생활의 신뢰도 계수 α 는 .84 이었고 공격성은 .91로 측정되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0년 8월에 이루어졌는데 2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각 학급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일일이 문제를 읽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2학년 학생들 중 이해가 늦은 학생들의 경우는 연구자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5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다음 날 갖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각 학생들의 어머니들로부터는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글과 설문지를 배부한 후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담임선생님들에게는 각 학생들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부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용과 어머니용 그리고 교사용 자료가 한 조를 이루는 자료 499부만을 본 조사에서 이용하였으나 문항에 따라서 응답 수에 차이를 보였다(<표 1> 참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방과후 활동의 참여 정도는 빈도분포를 이용하여 살펴보았고, 아동과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감독정도 및 아동의 조절력에 따른 방과후 활동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하여 방과후 활동 정도에 따른 아동의 성적,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Scheffe 검사를 이용하여 추후분석 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아동이나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아동이 방과후 참여하는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학년,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교육정도와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이용하여 방과후 활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오락실 가기만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방과후 활동이었다. 여학생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59%가 응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26%에 그쳤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농촌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방과후, 오락실이나 PC방에 더 자주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는 방과후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차이를 보였다 (<부록 1>참조). 분석결과에 의하면 특히 공부하기와 오락실가기는 학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빈도분포를 살펴보면 공부하기와 독서하기에는 저학년 아동들의 참여율이 고학년들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오락실 가기는 중학교 학생들의 참여율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참여율보다 높았다. TV시청만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항상 참여한다는 응답은 저학년일수록 비율이 높았는데 TV시청에서는 5학년 학생들이 항상 한다는에 대한 비율이 제일 높았다.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방과후 활동 참여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오

락실 가기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부록 2>참조).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높을 때 자녀들이 오락실에 전혀 가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고, 가끔 한다는 비율은 그 반대로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집단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공부, 독서 그리고 TV시청 활동에 차이를 만드는 변인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자녀들은 공부나 독서활동을 항상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자녀들은 독서나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에 더 많이 대답했다. TV보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자녀들이 전혀 하지 않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는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자주 한다는 집단에는 더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아동의 방과후 활동 참여정도가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형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파악과 추적 정도를 이용하여 본 어머니의 감독이 자녀의 방과후 활동에 차이가 나타내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아동의 방과후 보호형태(자기보호, 부모보호 혹은 기타)는 집안일 하기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3> 참조). 부모 보호를 하는 아동의 집단이 집안 일을 전혀 하지 않

<표 2> 아동과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방과후 활동 교차분석 결과표 χ^2 값

방과후 활동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학년	부교육	모교육	가족경제
공부하기	1.57	153.01**	22.59	25.37**	33.45
독서하기	3.56	77.00**	14.57	21.22*	37.65
TV 시청	4.55	39.26**	18.56	21.74*	27.85
집안일 하기	7.22	30.77**	20.02	16.84	22.28
친구집 놀러가기	4.51	47.98**	22.00	9.82	22.89
오락실가기	51.23**	101.07**	26.27*	16.70	17.99
돌아다니기	5.85	31.69**	29.42*	12.69	36.17

** p <.01 * p <.05

는다에서 다른 집단보다 그 비율이 높았고 자기보호를 하는 아동들이 부모보호나 다른 보호형태에 있는 자녀들보다 집안 일을 항상 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의 자녀 파악정도에 따라서는 자녀의 공부와 독서하기 그리고 오락실 가는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일상생활을 매우 낮게 파악하는 집단의 자녀들은 다른 집단의 자녀들보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높게 파악하는 집단의 자녀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독서하기에서 파악정도가 낮은 집단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집단의 자녀들보다 가끔 한다와 자주 혹은 항상 한다에 적게 대답했으며, 어머니의 파악정도가 높은 집단의 자녀들은 오락실에 전혀 가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의 자녀들보다 많이 적었다. 부모의 추적정도는 아동들의 공부와 독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추적정도가 낮은 집단의 자녀들은 공부나 독서하기를 전혀 혹은 별로 하지 않는다에 더 많이 답한 반면, 항상 한다에서는 낮았다.

아동의 충동통제와 행동조절력에 의해서 방과후 활동의 참여가 다른가를 살펴본 결과, 충동통제력보다는 행동조절력에 따라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3〉 〈부록 4〉참조). 우선 충동통제력은 공부하기, 독서하기 그리고 집안일 하기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공부하기와 독서하기에서는 충동통제가 낮은 집단에서 공부나 독

서를 전혀 하지 않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에 그리고 높은 집단에서 항상 한다에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집안일 하기에서는 충동통제가 높은 집단이 가끔 한다에서 제일 낮았고 항상 한다에서는 제일 높게 나타났다. 행동조절력은 방과후 모든 활동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방과후 활동 중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행동들인 공부하기, 독서하기에서 행동조절을 잘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는 집단과 비교할 때 자주 혹은 항상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고 전혀 혹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반면에 TV시청이나 오락실 가기에서는 행동조절이 낮은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항상 한다에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하지 않는다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집안일 하기에는 행동조절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주 혹은 항상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친구집을 놀러 가는 일은 높은 집단에서 하지 않거나 혹은 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 활동에 따른 아동의 성적과 정서와 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표 4〉부터 〈표 6〉까지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방과후 활동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성적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친구집 가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의 참여 정도에 따라 성적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 정도에 따라서 집단간에 차이를 보인 활동은 공부하기와 독서하기를 전혀 하지 않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

〈표 3〉 어머니 감독과 아동의 조절력에 따른 방과후 활동 교차분석 결과표 χ^2 값

방과후 활동	어머니의 감독			아동의 조절력	
	보호형태	파악 정도	추적 정도	충동통제	행동조절
공부하기	10.243	44.386**	28.993**	26.829**	152.151**
독서하기	7.319	25.277**	20.972*	35.147**	56.319**
TV 시청	9.918	16.428	11.656	14.776	56.463**
집안일 하기	22.399**	18.127	17.071	25.733**	43.294**
친구집 놀러가기	6.427	4.234	12.222	19.203	25.052*
오락실가기	3.570	20.760*	17.031	15.832	112.324**
돌아다니기	4.970	12.643	10.226	12.391	27.182**

** p <.01 * p <.05

고 대답한 아동들이나 항상 한다는 아동들보다 성적이 유의하게 낮았고, 오락실이나 돌아다니기를 항상 한다고 대답한 아동들은 전혀 하지 않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고 보다 성적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표 4>에서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 오락실에 가거나 돌아다니는 정도에 따라서 아동의 우울에 차이를 보였다. 항상 돌아다니한다고 대답한 아동들은 별로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한 아동들보다 더 우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하기, 독서하기, 집안일 하기, 친구집 놀러가기와 오락실 가기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차이를 보였다. 공부와 독서를 항상 하는 아동들은 전혀 혹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아동들보다 더 즐겁다고 하였다. 친구집에 항상 놀러 간다는 아동들도 별로 놀러가지 않는다는 아동들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용에는 공부하기, 독서하기, 친구집에 놀러 가거나 오락실에 가는 행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나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아동들은

자주 혹은 항상 한다고 대답한 아동들보다, 친구집이나 오락실에 항상 간다고 대답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들보다 학교생활적용을 잘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격성에 차이를 나타낸 방과후 활동은 독서하기, 친구집 놀러가기와 오락실 가기였는데 독서를 항상 한다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아동들은 별로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아동들보다 더 공격적이었고, 친구집이나 오락실에 항상 간다고 대답한 아동들은 별로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아동들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평가받았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구 10만 미만을 형성하는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 499명과 어머니 그리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만드는 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과후 활동에 따라서 이들의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표 4> 방과후 활동에 따른 성적의 ANOVA 분석결과: 평균과 표준편차 (인원수)

활동	전혀 안한다	별로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F값
공부하기	47.51a 9.05(20)	47.66 8.29(77)	49.69 8.07(183)	52.10 7.75(92)	52.35b 8.42(98)	5.518**
독서하기	47.41a 9.11(35)	48.37a 7.82(62)	49.86 8.32(166)	50.61 7.75(105)	52.77b 8.39(101)	4.383**
TV시청	52.07 7.39(25)	53.93 6.36(43)	51.11 8.43(72)	49.56 8.30(135)	49.67 8.43(191)	3.136*
집안일 하기	51.62 8.18(61)	52.21b 8.92(87)	50.28 7.49(160)	49.18 7.51(81)	48.17a 9.19(74)	3.244**
친구집 놀러가기	50.98 9.64(105)	50.68 8.44(117)	50.86 7.17(146)	49.02 6.46(59)	47.81 9.85(40)	1.671
오락실 가기	51.09b 8.15(200)	51.12b 8.64(73)	49.59 7.70(116)	49.36 8.29(55)	45.79a 10.21(25)	2.893*
돌아다니기	51.16b 8.57(154)	51.30b 7.56(118)	50.04 8.00(107)	49.14 8.95(44)	46.23a 7.95(39)	3.488**

** p <.01 * p <.05

〈표 5〉 방과후 활동에 따른 정서 적응 ANOVA 분석결과: 평균과 표준편차 (인원수)

활동		전혀 안한다	별로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F값
우 울	공부하기	9.19 5.11(21)	8.96 3.81(77)	8.74 3.79(174)	8.00 4.11(89)	8.59 3.99(100)	.837
	독서하기	8.88 4.24(33)	8.36 3.35(61)	8.91 3.96(163)	8.55 3.71(102)	8.33 4.39(101)	.468
	TV시청	8.67 3.70(24)	8.95 4.30(41)	8.06 3.93(71)	8.29 3.69(132)	8.88 4.02(189)	.866
	집안일 하기	8.74 4.02(57)	9.10 3.99(86)	8.06 3.44(158)	8.20 3.87(82)	9.41 4.80(73)	2.093
	친구집 놀러	9.00 4.43(101)	8.37 3.68(115)	8.57 3.77(145)	8.71 3.24(58)	8.75 5.35(40)	.353
	오락실 가기	8.22 3.96(196)	9.39 4.24(74)	8.34 3.72(112)	9.81 3.99(54)	8.75 4.02(24)	2.563*
	돌아다니기	8.34 4.12(152)	7.75a 3.15(114)	9.06 3.89(106)	9.40 4.16(43)	10.13b 4.77(39)	3.823**
즐 거 움	공부하기	13.86a 5.07(22)	14.01a 4.20(76)	14.93 3.68(179)	16.57b 3.06(90)	17.27b 3.33(98)	12.894**
	독서하기	13.97a 5.34(33)	14.44a 3.35(62)	15.09a 3.84(162)	15.71 3.52(103)	17.18b 3.34(104)	8.525**
	TV시청	16.75 4.57(24)	15.56 4.36(43)	15.20 4.40(71)	15.51 3.27(133)	15.60 3.72(190)	.751
	집안일 하기	15.80 4.00(59)	14.71 3.79(86)	15.24 3.51(161)	15.90 3.48(79)	16.46 4.68(74)	2.566*
	친구집 놀러	15.55 4.06(101)	14.79a 4.04(117)	15.60 3.58(148)	15.78 3.65(58)	17.13b 3.66(40)	2.897*
	오락실 가기	16.33 3.75(198)	14.27 4.05(74)	15.58 3.61(113)	14.28 3.48(54)	15.60 4.48(25)	5.761**
	돌아다니기	15.62 4.16(153)	15.73 3.52(118)	15.10 3.79(104)	14.71 3.99(43)	16.36 3.75(39)	1.153

** p < .01 * p < .05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 참여는 학년과 아동의 행동조절력에 의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7개 영역의 활동에 모두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오락실 가기에만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교육수준은 차이를 나타내는 방과후 활동영역이 서로 달랐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오락실가기와 돌

아다니기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공부와 독서하기 그리고 TV시청하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성격에 차이를 보이는 방과후 활동은 공부와 독서하기, TV시청, 집안일 하기와 오락실 가거나 돌아다니기였다. 우울에는 오락실 가기와 돌아다니기만이 그리고 공격성에는 독서하기와 친구집가기 그리고 오락실 가기로 나타났다. 즐거움과 학교생활적응에는

〈표 6〉 방과후 활동에 따른 사회성 적응 ANOVA 분석결과: 평균과 표준편차 (인원수)

활동		전혀 안한다	별로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F값
학 교 생 활	공부하기	25.24a 6.91(21)	28.31 5.16(75)	28.56b 5.72(179)	29.87b 5.29(87)	30.68b 5.57(100)	5.375**
	독서하기	26.22a 6.91(32)	28.65 5.73(62)	29.02 5.77(162)	29.67b 5.26(101)	29.06b 5.36(104)	2.692*
	TV시청	31.08 5.45(25)	29.76 4.68(42)	29.49 5.07(72)	29.00 6.04(129)	28.62 5.90(189)	1.320
	집안일 하기	28.64 5.55(61)	29.98 5.68(85)	28.82 5.41(160)	29.45 5.70(77)	28.64 6.15(72)	.907
	친구집 놀러	29.09b 6.00(102)	30.03b 5.19(114)	29.12b 5.67(146)	29.21b 5.94(56)	26.12a 5.35(42)	3.713**
	오락실 가기	29.94b 5.56(195)	30.28b 5.24(72)	28.30b 5.48(114)	28.30b 5.68(54)	24.56a 6.26(25)	7.007**
	돌아다니기	29.81 5.56(150)	29.70 5.64(118)	28.34 5.60(103)	27.88 6.05(43)	27.49 5.78(39)	2.629*
공 격 성	공부하기	8.14 3.78(22)	7.61 3.77(75)	7.71 3.76(182)	7.31 3.24(91)	7.65 3.79(102)	.304
	독서하기	9.26b 4.29(34)	6.84a 3.28(62)	7.25 3.55(165)	7.56 3.58(104)	8.25b 3.73(106)	3.703*
	TV시청	6.54 3.34(26)	7.98 3.39(44)	7.53 3.76(72)	7.57 3.68(133)	7.81 3.75(192)	.803
	집안일 하기	7.98 3.56(62)	7.80 3.84(86)	7.35 3.62(162)	7.53 3.36(79)	7.55 3.78(76)	.435
	친구집 놀러	7.42 3.69(105)	6.91a 3.45(116)	7.93 3.81(149)	7.65 2.91(57)	9.10b 4.14(42)	3.207**
	오락실 가기	7.17a 3.53(201)	6.69a 3.59(72)	8.05a 3.61(118)	8.31 3.59(54)	10.16b 3.92(25)	6.060**
	돌아다니기	7.63 3.51(155)	7.31 3.52(119)	7.63 3.75(106)	7.82 4.10(45)	8.36 4.04(39)	.639

** p <.01 * p <.05

공부와 독서하기 친구집 가기와 오락실 가기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고 집안일 하기가 즐거움에 돌아다니기가 학교생활적응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나라 농촌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살펴

본 결과, 방과후 활동참여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이나 방과후 활동이 적응영역에 나타내는 차이는 서구사회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와는 차별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성은 무엇보다도 사회문화적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방과후 활동을 다룬 구미의 선행연구들은 TV시청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행동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아동발달에 부정적이라고 보고한다 (Fulgini & Stevenson, 1995; Galambos & Maggs, 1991; Huston et als., 1999; Larson & Richards, 1989; Long & Long, 1983; Posner & Vandell, 1994, 1999; Steinberg, 1986). 그러나 우리 나라 농촌아동의 경우 TV를 시청하는 정도가 성적에 차이를 나타낸다고는 밝혀졌지만 구체적으로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는 실패하였고, 친구집에 자주 가는 행동이 학교생활적응이 어렵고 공격성이 높다고도 평가되었으나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다는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가 (Fulgini & Vandell, 1999; Posner & Vandell, 1999)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농촌이 지니는 환경적 특성이 경제적 수준이 나타내는 차이를 통제하기 때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인지 혹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문은 후속연구의 작업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의해 나타난 차이는 오락실 가기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오락실에 더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학생들이 컴퓨터게임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지만 (Bianchi & Robinson, 1997; Fulgini & Stevenson, 1995; Huston et als., 1990; Huston et als., 1999; Posner & Vandell, 1999) 바깥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거나 활동범위가 더 넓거나 (Posner & Vandell, 1999) TV시청을 더 많이 한다는 (Bianchi & Robinson, 1997; Fulgini & Stevenson, 1995; Huston et als., 1999; Posner & Vandell, 1999) 결과는 지지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집안 일을 더 많이 하거나 공부와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결과 (Fulgini & Stevenson, 1995; Huston et als., 1999; Posner & Vandell, 1999) 또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가 성별에 의한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Huston등이(1999) 주장하듯이 성별에 따른 방과후 활

동의 차이는 11세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후자에 지적된 논의는 성별과 학년이라는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방과후 활동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는 작업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방과후 활동 중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따라서 TV시청이나 (Bianchi & Robinson, 1997; Fulgini & Stevenson, 1995; Huston et als., 1999) 공부하기 (Fulgini & Stevenson, 1995) 혹은 집안일 하기 (Posner & Vandell, 1999)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오락실 가기와 돌아다니기에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공부하기, 독서하기와 TV시청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바깥 활동을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가정 내 활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몇 개의 한정된 방과후 활동의 참여에만 차이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 부모들이 갖는 자녀가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로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해석과 가정은 방과후 활동과 가족관련 변인들을 더 자세히 다루어주는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넷째, 가족구조보다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거나 추적하는 정도가 자녀의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만들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이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지되고 있다. 보호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 방과후 활동은 집안일 하기였는데 집안 일을 하는 행동이 성적이나 즐거움에 차이를 보인다고 나타났으나 즐거움에서는 특정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집안일을 항상 한다는 아동들이 별로 하지 않는 아동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보였으나 이는 부모의 감독부실로 지적되기보다는 부재로 인한 부적응 현상이라고 하겠다. 보호형태보다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정도가 공부와 독서하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파악정도는 오락실 가기에 차이

보였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감독능력이 아동의 발달이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Crouter, Helms-Erikson, Updegraff & McHale, 1999; Kerr & Stattin, 2000; Pettit, Bates, Dodge & Meece, 1999; Pettit, Laird, Bates & Dodge, 1997; Stattin & Kerr, 2000).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잘 파악하고 추적하는 집단의 자녀들이 공부나 독서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행동은 성적이나 즐거움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었다. 파악을 잘 하는 집단의 자녀들이 오락실에 가는 행동에 덜 참여한다는 대답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일상생활 추적이 파악보다 아동의 발달에는 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하겠다. 파악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에 관련을 보이지만 추적은 부정적인 발달을 예방 혹은 금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갖게 한다. 부모의 파악이나 추적 정도가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자세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방과후 활동에 따른 정서와 사회성 영역에서의 적응결과에서도 드러난다. 항상 돌아다니는 아동이 더 우울해하거나 오락실에 항상 간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제한점이 적용되는데 방과후 활동과 적응을 보이는 변인들간의 전후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주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대상이 특정 농촌지역에 한정되었기에 본 연구결과를 모든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적용하여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시킨 방과후 활동이 일부 활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적인 방과후 활동을 이해하는데도 제한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과후 활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해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태중(1998). 방과후 활동을 위한 제언. *경기교육* 139, 8-12.
- 권일남(2000). 초·중·고의 방과후 활동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 97-112.
- 김경희(1998).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1996) 아동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아동연구* 5, 40-52.
- 김선희·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6-165.
- 오치선·권일남(1999).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실태에 관한 연구. *명지대 리서치아카데미논총* 2, 41-63.
- 전하찬(1997).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의 필요성과 대책. *교육진흥* 36, 118-131.
- 한명희(1992).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실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준표(1996). 사회정서발달 진단과 지도방법. 1996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ation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ell, D.(1997). Varieties of self-care: A qualitative look at children's experiences in the after-school hours. *Merrill-Palmer Quarterly* 43, 478-496.
- Bianchi, S. M. & Robinson, J.(1997). What did you do today? Children's use of time, family composition, and acquisition of social capital.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32-344.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A.(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ro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 55-68.
- Crouter, A. C. Helms-Erikson, H. Updegraff, K. & McHale, S. M.(1999). Conditions underlying parents' knowledge about children's daily lives in middle childhood: Between- and within-family comparisons. *Child Development* 70, 246-259.
-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ry-Jenkins, M.(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49-657.
- Eme, R. E. (1979). Sex differences in childhood psychopatholog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574-596.
- Fox, N. A. (1989).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emotional reactivity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64-372.
- Fuligni, A. J. & Stevenson, H. W.(1995). Time use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66, 830-842.
- Galambos, N. L. & Maggs, J.(1991). Children in self-care; figures facts, and fiction. In J. V. Lerner & N. L. Galambos (Eds.), *Employ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pp. 131-157). New York: Garland.
- Greenberger, E. (1982). Education and the acquisition of psychosocial maturity. In D. McClelland (Ed.), *The development of social maturity* (155-189). New York: Irvington.
- Guernsey, L.(1991). A survey of self-supports and social supports of self-care children.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5, 243-254.
- Huston, A. C., Wright, J. C., Marquis, J. & Green, S. B.(1999). How young children spend their time: Television and other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35, 912-925.
- Huston, A. C. Wright, J. C., Rice, M. L., Kerkman, D. & St. Peters, M.(1990). The development of television viewing patterns in early childhood: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9-420.
- Kerr, M. & Stattin, H.(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66-380.
- Laird, R. D.,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1998). The social ecology of school-age child car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 329-348.
- Larson, R., & Richards, M. H.(1989). Introduction: The changing life space of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01-510.
- Larson, R., & Richards, M. H.(1991). Daily companionship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Changing developmental contexts. *Child Development* 62, 284-300.
- Long, T. J., & Long. L.(1983). Latchkey children: The child's view of self-care. Arlington, VA: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Documents Reproduction service.
- Maccoby, E. E. & Jacklin, C. N.(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uldin, T. & Meeks, C. B.(1990).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time use. *Sex Roles* 22, 537-554.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Patterson, C., Vaden, N., Griesler, P., & Kupersmidt, J.(1991). Income level, gender, ethnicity, and household composition as predictors of children's peer companionship outside of scho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447-465.
-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M.(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 908-923.
- Pettit, G. S., Bates, J. E., Dodge, K. A. & Meece, D. W.(1999). The impact of after-school peer contact on early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s is moderated by parental monitoring, perceived neighborhood safety and prior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0, 768-778.
- Pettit, G. S., Laird, R. D., Bates, J. E. & Dodge, K. A.(1997). Patterns of after-school care in middle childhood: Risk factors and developmental outcomes. *Merrill-Palmer Quarterly* 43, 515-538.
- Posner, J. K. & Vandell, D. L.(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 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Posner, J. K. & Vandell, D. L.(1999). After-school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low-income urba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5, 868-879.
- Richards, M. H. & Duckett, E.(1994).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employment in early adolescent daily experience with and without parents. *Child Development* 65, 225-236.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 Shoda, Y., Mischel, W. & Peake, P. K.(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48-967.
- Stattin, H. & Kerr, M.(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 1072-1085.
- Steinberg, L.(1986). Latch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33-439.
- Steinberg, L., Elmen, J. D. & Mounts, N. S.(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h, S. M. & Darling, N.(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 1266-1281.
- White, M. J. & Kaufman, G.(1997). Language usage, social capital, and school completion among immigrants and native-born ethnic groups. *Social Science Quarterly* 78, 385-398.

〈부록 1〉 아동의 성별, 부·모교육에 따른 방과후 활동 빈도(백분율)와 교차분석 결과표

활동	변인		전혀 안한다	별로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χ ²
	오락실 가기	성 별	남 녀	52(25) 149(56)	32(16) 42(16)	70(34) 46(17)	36(18) 19(7)	
오락실 가기	부 교 육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대이상	13(30) 75(41) 56(61) 1(50)	10(23) 29(16) 12(13)	2(50) 14(33) 49(27) 15(16)	2(50) 4(9) 20(11) 6(7)	2(5) 10(5) 3(3)	26.27*
돌아 다니기	부 교 육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대이상	14(33) 61(33) 36(40) 1(50)	1(25) 11(26) 40(22) 27(30)	12(29) 44(24) 18(20) 1(50)	3(75) 4(10) 21(12) 6(7)	1(2) 17(9) 3(3)	29.42*
공부 하기	모 교 육	초등 중등 고등 대학	4(7) 11(5)	1(10) 17(29) 27(13) 2(4)	5(50) 19(32) 83(39) 15(33)	1(10) 13(22) 42(20) 13(29)	3(30) 6(10) 49(23) 15(33)	25.37**
독서 하기	모 교 육	초등 중등 고등 대학	4(7) 11(5)	1(10) 17(29) 27(13) 2(4)	5(50) 19(32) 83(39) 15(33)	1(10) 13(22) 42(20) 13(29)	3(30) 6(10) 49(23) 15(33)	21.22*
TV 시청	모 교 육	초등 중등 고등 대학	4(7) 11(5)	1(10) 17(29) 27(13) 2(4)	5(50) 19(32) 83(39) 15(33)	1(10) 13(22) 42(20) 13(29)	3(30) 6(10) 49(23) 15(33)	21.74*

** p < .01 * p < .05

〈부록 2〉 학년에 따른 방과후 활동 빈도(백분율)와 교차분석 결과표

활동	학 년	전혀 안한다	별로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χ^2
공부하기	초2	6(5)	5(4)	25(19)	25(19)	70(53)	153.01***
	초5	4(3)	12(10)	53(45)	33(28)	17(14)	
	중1	13(6)	60(27)	105(47)	34(15)	11(5)	
독서하기	초2	21(16)	8(6)	27(21)	25(19)	50(38)	77.00**
	초5	2(2)	14(12)	39(33)	34(29)	29(25)	
	중1	12(5)	41(18)	101(45)	46(21)	23(10)	
TV시청	초2	17(13)	20(15)	25(19)	24(18)	46(35)	39.26**
	초5	1(9)	10(9)	16(14)	34(29)	55(47)	
	중1	7(3)	14(6)	31(14)	77(35)	92(42)	
집안일 하기	초2	30(23)	18(14)	35(27)	17(13)	29(23)	30.77**
	초5	17(15)	22(19)	37(32)	23(20)	17(15)	
	중1	15(7)	48(22)	89(40)	41(19)	28(13)	
친구집 놀러가기	초2	36(28)	16(12)	41(32)	10(8)	26(20)	47.98**
	초5	25(21)	30(25)	36(30)	19(16)	9(8)	
	중1	44(20)	72(32)	70(32)	30(14)	6(3)	
오락실 가기	초2	100(77)	5(4)	12(9)	4(3)	9(7)	101.07**
	초5	43(36)	24(20)	34(29)	16(13)	2(2)	
	중1	58(26)	45(20)	71(32)	35(16)	14(6)	
돌아다니기	초2	51(40)	20(16)	30(24)	9(7)	17(13)	31.69**
	초5	52(44)	28(24)	20(17)	8(7)	9(8)	
	중1	53(24)	70(32)	57(26)	28(13)	13(6)	

** p <.01 * p <.05

〈부록 3〉모감독과 아동의 충동통제에 따른 방과후 활동 빈도(백분율)와 교차분석 결과표

활동	변인		전혀 안한다	별로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χ^2
	집안일 하기	보호 형태	자기 부모 기타	12(10) 39(16) 9(10)	18(15) 43(18) 23(25)	38(31) 87(36) 30(32)	20(10) 41(17) 21(22)	
공부 하기	파악 정도	1	9(9)	28(27)	38(37)	19(18)	9(9)	44.386**
		2	2(3)	10(14)	35(47)	9(12)	18(24)	
		3	4(4)	9(10)	40(43)	20(22)	20(22)	
		4	2(3)	6(8)	21(27)	23(29)	27(34)	
독서 하기	파악 정도	1	6(6)	19(18)	48(47)	15(15)	15(15)	25.277**
		2	2(3)	10(14)	28(38)	18(24)	16(22)	
		3	7(8)	13(14)	32(34)	20(22)	21(23)	
		4	11(14)	4(5)	21(27)	21(27)	21(27)	
오락실 가기	파악 정도	1	35(34)	18(18)	33(32)	12(12)	5(5)	20.760*
		2	29(39)	15(20)	21(28)	7(10)	2(3)	
		3	42(45)	12(13)	22(23)	10(11)	8(9)	
		4	47(61)	12(16)	11(14)	5(7)	2(3)	
공부 하기	추적 정도	1	11(9)	27(22)	41(33)	23(19)	22(18)	28.993**
		2	2(2)	13(13)	48(47)	25(24)	15(15)	
		3	3(4)	9(13)	27(38)	8(11)	24(34)	
		4	2(3)	7(9)	28(37)	19(25)	19(25)	
독서 하기	추적 정도	1	10(8)	23(19)	49(40)	22(18)	20(16)	20.972*
		2	2(2)	14(14)	42(41)	23(23)	21(21)	
		3	9(13)	4(6)	22(31)	19(27)	17(24)	
		4	5(7)	6(8)	26(35)	18(24)	20(27)	
공부 하기	충동 통제	1	7(7)	21(21)	41(41)	13(13)	17(17)	26.829**
		2	4(4)	17(19)	39(43)	22(24)	9(10)	
		3	9(6)	25(16)	56(37)	28(18)	34(22)	
		4	1(8)	12(10)	42(35)	29(24)	36(30)	
독서 하기	충동 통제	1	14(14)	18(18)	33(33)	16(16)	18(18)	35.147**
		2	3(3)	16(18)	38(42)	25(28)	9(10)	
		3	11(7)	19(13)	49(33)	38(25)	34(23)	
		4	6(5)	8(7)	42(35)	24(20)	40(33)	
집안일 하기	충동 통제	1	18(19)	17(18)	34(35)	14(14)	14(14)	25.733**
		2	5(6)	26(29)	35(39)	12(14)	11(12)	
		3	21(14)	21(14)	59(39)	31(20)	20(13)	
		4	15(13)	23(20)	30(25)	22(19)	28(24)	

〈부록 4〉 행동조절력에 따른 방과후 활동 참여 빈도(백분율)와 교차분석결과

활동	행동조절	전혀 안한다	별로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χ^2
공부하기	1	12(13)	32(35)	37(41)	6(7)	4(4)	152.15***
	2	5(4)	25(21)	57(48)	20(17)	12(10)	
	3	2(2)	14(13)	52(49)	24(23)	14(13)	
	4	4(3)	5(3)	32(21)	42(28)	70(46)	
독서하기	1	13(14)	16(18)	30(33)	19(21)	13(14)	56.32**
	2	6(5)	27(23)	45(38)	23(19)	18(15)	
	3	5(5)	11(10)	48(45)	28(26)	14(13)	
	4	11(7)	9(6)	41(27)	32(21)	59(39)	
TV시청	1	1(1)	4(4)	13(14)	23(25)	51(55)	56.46**
	2	1(9)	8(7)	18(15)	40(34)	50(43)	
	3	4(4)	4(4)	16(15)	38(37)	42(40)	
	4	20(13)	26(17)	26(17)	33(22)	47(31)	
집안일 하기	1	17(19)	23(25)	28(31)	12(13)	11(12)	43.29**
	2	10(9)	33(28)	45(38)	17(14)	13(11)	
	3	12(11)	16(15)	40(38)	28(27)	9(9)	
	4	23(15)	15(10)	49(33)	24(16)	39(26)	
친구집 놀러가기	1	15(17)	23(25)	29(32)	19(21)	5(6)	25.05*
	2	20(17)	29(24)	37(31)	20(17)	13(11)	
	3	21(20)	33(31)	35(33)	9(9)	7(7)	
	4	46(30)	31(20)	48(32)	11(7)	16(11)	
오락실 가기	1	21(23)	8(9)	36(39)	15(16)	12(13)	112.32**
	2	28(24)	27(23)	37(31)	20(17)	7(6)	
	3	42(40)	25(24)	26(25)	9(9)	4(4)	
	4	110(73)	13(9)	17(11)	9(6)	2(1)	
돌아다니기	1	23(25)	22(24)	20(22)	16(18)	10(11)	27.18**
	2	31(27)	37(32)	26(22)	13(11)	10(9)	
	3	34(33)	25(24)	30(20)	10(10)	5(5)	
	4	67(44)	34(23)	30(20)	6(4)	14(9)	

** p <.01 * p <.05